

포천사회 知識人 ㉔

경북대학 장 경 자 교수

국내 피부미용자격증제도立法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하면 큰 성과 기대

“아름다워지려는 인간의 욕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현대의학의 기술적 진보와 예술영역에 기초를 둔 미용기술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부미용과는 이러한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부미용과의 교육과정은 피부관리, 헤어, 메이크업의 세 분야로 나뉘어 교육을 실시하며, 현대인의 다양한 미적 능력을 가진 전문미용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부미용과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실기 교사 자격증과 미용사면허증을 발급 받는다. 취업분야로는 화장품회사의 강사, 피부 및 두발 제품회사의 교육강사, 미용학원 강사, 기술학교 실기교사, 에스테틱 살롱의 피부관리사,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전문관리사, 병원 및 건강증진센터의 건강관리사, 비만클리닉의 에스테티션, 발전관리사의 관리사, 헤어살롱의 디자이너, 두피클리닉의 전문관리사, 신부화장이나 광고 사진을 위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웨딩스튜디오 등이 있다.”

이상은 경북대학 피부미용과를 소개한 내용이다. 경북대학 피부미용과 장경자(39·사진)교수는 1998년3월 경북대학에 개설된 피부미용과 교수로 부임해 현재까지 교육에 나서고 있다.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나 천안 남산초등학교, 대전 동방여자중학교, 한밭고등학교, 충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에스테틱 전문학교 EFPF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역학 및 질병관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국가자격증 CAP를 취득했다.

장 교수는 전공에 대해 “피부관리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외모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화장품과 손, 기기, 기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신의 피부를 가꾸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며 “피부의 유형과 증상을 진단하고 단순히 피부의 외형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각 증상에 알맞은 관리방법 및 화장품을 적용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문제성 피부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대학에서 장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은 ▶피부과학▶피부미용실기▶에스테틱 세미나▶화장품학▶발관리론 및 실습▶대체요법이론 및 실습▶에스테틱 기기관리▶립프드레네지 이론 및 실습▶아로마 테라피이론 및 실습 등이다.

피부미용학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연관학문의 발전과 교육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 피부미용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창립된 대한피부미용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교수는 아직 국내에 피부미용자격증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년대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교수들이 나서서 국가자격증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도에는 이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교수는 학교가 포천에 있기 때문에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주변의 사회봉사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도 깎아주고 청소도 해주며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있다고 한다.

장 교수는 경북대학 피부미용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포천에서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포천여성회관 등에서 피부미용과목을 개설하고도 학교와 협의하지 않고 외부강사를 영입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북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는 포천관내에서 미용실 원

장도 있다며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를 좌우명으로 삼아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나서고 있는 장 교수는 (주)태평양 미용과학연구소와 (주)유로통상 화장품 사업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공관련 학교행사로는 매년 학교 축제시 헤어·메이크업 쇼를 개최하는데 이때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전공관련 수상실적으로는 2006년 (사)대한미용사중앙회장배 한국 뷰티 페스티벌 대회에서 대학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피부미용 부문에서는 피부미용학회장상 1명, 금상 2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7명, 입선 15명 등 모두 2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 헤어부문에서는 헤어스케치 동상 1명, 컷트 장려상 1명, 창작품 부문중 창작상 2명, 작품상 1명 등 모두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장 교수의 소속학회 및 활동사항은 현대한피부미용학회 회장, 대한피부미용전문가협회 상임이사, 피부미용전문잡지 AESPRO 편집위원, (사)대한미용사중앙회 피부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장 교수는 포천지역과 관련하여 경직된 부분과 낙후된 느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의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천신문이 최대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미용의 개념이 결정을 커버하고 수정한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건강한 피부의 아름다움을 돌보이게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와 함께 현대에는 피부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과학적인 연구와 이러한 연구를 전문사통을 통해 산업화 하는 물결이 진전되고 있다”며 “보호와 미화의 개념을 가졌던 미용도 임상과 개선의 개념에서 자리를 주면서 특수처치를 원하거나 특별한 행사에 대비하는 일이 아니면 업소에 찾지 않았던 홈케어의 인구가 전문인에게 얼굴을 맡기는 인구가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에스테티션으로서의 직업의 기회가 밝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임상과 개선의 개념으로 전문인에게 얼굴을 맡기고 있어 전망 좋다”

취재파일

포천지역 教育해법 어떻게 찾아야 하나

기존 장학금 일부 통합 명문고교 육성해야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요즘 신학기를 맞아 각 단체 혹은 장학회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지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와 장학회는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취지다. 장학금 수혜자는 각 읍면동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른다 할 수 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장학금은 격려금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 혹은 130만원에 이른다. 물론 학비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제도 일부 있다. 장학금 수여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이다. 몇 십만원의 지급할 경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 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이 아닌가 싶다.

포천지역 현안문제 하면 교통문제, 지역경제 침체, 도시기반시설 부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등 각종 규제법령 등을 꼽는다.

그러나 가장 큰 현안문제는 교육문제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안문제는 교육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포천시민들은 교통난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출퇴근 차량이다.

포천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의정부 혹은 서울 상계동,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다. 국도43호선과 국도47호선은 일일 교통량은 6천2천대라고 한다. 이중 출퇴근 차량은 2만5천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가이 출퇴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정부와 서울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간부직 공무원이거나 중소기업체 대표 혹은 기업체 간부들이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서나 소방서 직원들은 포천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나 포천소방서 직원 가운데 포천이 초임 발령지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령을 받은 후 기본 복무기간인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인근 도시나 대도시로 전출을 가고있다. 이들 기관 간부들은 ‘일할만 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간다’, ‘초임자를 교육시키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포천지역이 교육하는 지역이냐’는 등의 불평을 하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포천지역 초임교사 임용비율이 60%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천에 임용된 교사들은 기본적인 기간만 포천에서 보내고 타 지역으로 전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천지역 교육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은 물론이거니와 외국까지 보내고 있다. 교육열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

부모들의 교육열이 이러한 상황인데 포천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과연 누가 포천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겠는가? 교육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이것이 부모들의 심정이다.

포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03년 포천지역 총 생산량은 2조4천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 중에서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화가 외부로 유출되고 7천억원 정도가 지역에서 순환된다고 한다. 외부유출이 일어나는 원인은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유출 등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직장과 거주지 분리현상이라고 한다.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원인은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포천지역의 교통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포천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목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신설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이건 사립학교이건 구분할 필요없다고 본다.

포천지역에는 재단법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과 수많은 장학회, 혹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조직되었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은 포천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지역에 생색내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포천시가 주관이 되어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은 포천시 예산으로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적립하고 민간 출연금 50억원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금이 10억원이 조성된 올 2월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 등 39명에게 3천370만원을 지급했다. 또 기금이 증가하면 매년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학금을 받는 대상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가운데 공부에 열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지역인재 혹은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장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단체에서 10%씩 포천시인재장학재단에 기부하면 그 금액의 규모는 수백억대로 증가할 수 있다.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역시 격려금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조성된 기금으로 공립이건 혹은 사립이건 구분하지 말고 특목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3년간 교육비는 물론 학습 교재비, 식비 전액도 지급하고 교사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학교출신이 대학입시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학에 20~30명씩 입학하게 되면 포천의 교육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포천의 교육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해법을 찾는 데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

제4기 포천문예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는 늘어나는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포천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4기 포천문예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기 간
 - 2007년4월~6월(3개월간 12주)
 - 매주 목요일 19:00~22:00
- 장 소
 - 대진대학교 국제학관(평생교육원) 310호
- 대 상
 -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인접 시·군 거주자도 환영)
- 과 목
 - 시·수필·소설·기타 문학관련 특강
- 교수진
 - 시 부문(이론과 실제 포함): 대진대학교 박정근·양근원 교수
 - 산문·소설 부문(문예창작 포함): 대진대학교 김성렬·정호모 교수

- 특 전
 - 본 문예대학 수강료 전액면제
 - 본 기간 이수자에 대하여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교부.
 - 기 타
 - 문예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추진중이며
 - 문학여행·낭송회·명사초청 강연 등을 계획중이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포천예총 사무국(031-531-8181), 포천문인협회(사무국장 이원용 017-364-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포천문인협회 회원들은 가족(자녀)·친지·문학도·기타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장 이재옥